

백제 풍왕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부흥운동의 전개

도침의 몰락과 복신의 주도 배경을 중심으로

김병남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한국고대사 전공

kbn1004@korea.kr

- I. 머리말
- II. 부흥백제국 성립의 대외적 조건
- III. 도침과 복신의 위상과 부흥운동의 향방
- IV. 신라의 대응과 도침의 몰락
- V. 맺음말

I. 머리말

“흥한 자는 망하고 성한 자도 반드시 쇠퇴한다”는 금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예외를 보인 적이 없다. 다만 쇠퇴하는 속도를 조금 더디게 하고 되도록 뒤로 미루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의든 타의든 백제의 멸망도 필연적이다. 하지만 그 쇠퇴하는 순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역사에서 얻을 교훈일 것이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은 내주(萊州, 현 산둥성 액현)를 출발하여 서기 660년 6월 21일에 신라 태자인 김법민과 덕물도(현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에서 만나 향후 작전을 논의한 결과 7월 10일에 합류하여 백제 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¹⁾ 이에 당군은 7월 10일에 기벌포에서 백제군을 대파하고 군영을 마련하였으며, 신라군은 전날에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한 후 이틀 만인 7월 11일에 사비 남쪽의 당군 진영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백제 수도인 사비성을 공격하기 위해 모인 나·당 연합군은 당 수군을 제외하면 무려 15만 명 이상이 되었다. 10만 이상이 넘는 대병력이 한 장소에 집결한 모습은 일찍이 없는 일이었다.

합류한 연합군은 신속하게 백제 수도인 사비성 진격 작전을 전개하였다. 7월 12일에는 백제 도성으로부터 약 30리 거리²⁾를 둔 진영에서 출발하여 사비성을 공략하자, 성에 있던 백제 태자 융은 다음날 곧바로 항복하였고, 옹진성으로 도피하였던 의자왕 역시 7월 18일에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백제 왕의 항복과 수도인 사비성의 함락은 무자비한 약탈을 수반하였고, 약탈의 광풍이 한동안 지난 뒤 나·당 연합군은 8월 2일에 사비성에서 축하연을 벌였다.

그러나 승전의 분위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백제 좌평 정무, 달솔 여자진 등을 중심으로 일단의 백제 세력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에 소정방은 8월 26일에 군대를 동원하여 많은 무리가 집결하였던 임존성을 공격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9월 3일에 당 본진을 철수시키고 말았다.³⁾ 당시 나·당 연합군은 오직 백제 수도인 사비성과 옹진성만 점령하였을

1)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2) 김주성, 「7세기 삼국 고대 전투 모습의 재현」, 『군사』 81(2011), 53쪽.

3) 당군의 신속한 철군을 전염병과 연관시켜 보기도 한다. 이현숙,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2003), 126-127쪽.

뿐 대부분의 지역은 방치한 채 떠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 상황은 누가 어떻게 백제 지역을 주도하는가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은 도침과 복신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부흥 세력이었다. 이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당 주둔 병력으로부터 수도인 사비성을 탈환하여 백제국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드러냈고, 그 진행은 우리가 아는 ‘부흥운동’의 전개였다.

하지만 서기 660년 7월의 사비성 함락 이후 백제 부흥 세력이 당과 신라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새로운 백제국의 부활을 주도해나가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풍왕의 웅립과 나·당 연합군의 1차 주류성 공략을 막아내어 ‘남방제성(南方諸城)’이 호응하는 상황에서 사비성 주둔 당군을 축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던 서기 661년 4월에서 서기 662년 2월 사이에 부흥백제 세력은 내부 권력다툼에 빠져버렸다. 물론 관련 사료가 부족하여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지만 역사학은 과거의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예상 밖의 사실을 끄집어내어 소개함으로써 지금까지 무심히 형성된 역사의 이미지를 고쳐나가는 것을 임무로 한다. 그런 관점에서 도침과 복신에 대한 흐릿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이 시기와 연관된 주변 사료들을 세밀히 살피고 이를 토대로 당시 상황에 유추와 해석을 더하면, 도침과 복신 및 나아가 풍왕 시기 부흥백제국의 수립과정에 대한 세세한 모습을 어느 정도는 새롭게 파악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규명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부흥 세력⁴⁾의 주도 인물인 도침과 복신이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조용하여 어떠한 노력과 움직임을 통해 어떻게 국가체제를 수립하려 했는지를 살피고, 이에 대응한 이해 당사자의 움직임이 부흥백제국 운영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4)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일조각, 200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편, 『백제부흥운동사연구』(서경, 2004);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서경, 200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2007); 양중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옛보기』(서경, 2008).

II. 부흥백제국 성립의 대외적 조건

백제 부흥운동의 배경은 일시 단절된 국가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다. 부흥운동을 추진한 복신이나 도침, 정무, 여자진 등 일련의 세력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단절된 왕통을 이으면 국가는 계속된다고 여겼을 것이다. 즉, 당시 백제 사람들에게 부흥운동은 ‘위험한 국가적 상황을 다시 안정시켜 유지해나가는’ 일련의 노력에 불과하였다. 서기 660년 9월 23일에 사비성을 포위 공격하고⁵⁾, 10월에는 왜에 사신을 보내 왕자 부여풍의 왕위 계승을 요청한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백제 부흥운동의 시작과 끝을 살펴볼 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서기 660년 7월 18일에 의자왕이 항복한 순간부터 살아남은 정치 세력은 새로운 왕권 수립을 향한 움직임을 개시했다는 점이다. ‘부흥운동’은 바로 이런 정치행위의 시작일 뿐이다. 다만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는 단순한 이해로 바라보았기에 외세의 축출 노력과 실패, 나아가 ‘멸망’이라는 의미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부흥을 실행하고자 한 기저, 즉 왕통의 회복과 국정 재건이라는 내부적인 정치행위란 관점에서 ‘부흥운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일시 붕괴된 상태에서 자신과 주변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행동하였던 재지 세력들은 여건만 된다면 언제든지 뭉칠 존재들이었다. 『삼국사기』 무열왕 7년 7월 기록의 남잠성, 정현성, 두시원악 등은 바로 나·당 침략군에게 노략질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자위조직체나 마찬가지였으나 스스로 국가 재건이나 왕통의 연속성 확보 같은 정치적 행동을 담보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임존산의 복신과 도침 세력은 조금 달랐다. 그들은 당이 보기에 도모(圖反逆)할 정도로 큰 뜻을 품은 자들로 무리를 규합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날뛰며(狂狻)’ 노력하였기 때문이다.⁶⁾ 그래서 당에 항복하였던 흑치상지의 무리가 합류⁷⁾하였고,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9월 이전에 이미 여자진과도 연계⁸⁾하는 등 세력 결집으로 이들에 대한 백제인들의 신망은 더욱 높아만

5)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9월.

6) 「당유인원기공비」.

7) 『삼국사기』 44, 「열전」 5, 흑치상지.

8) 『일본서기』 26, 제명 6년 9월 9일.

갔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 661년 3-4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 승리는 백제 부흥 세력에게 세력 기반을 고착시킬 계기를 마련해주었다.⁹⁾ 따라서 부흥 세력은 부여풍의 조속한 귀국과 등극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수립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외적 상황 전개도 백제 부흥 세력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즉, 백제 부흥 세력과 전쟁을 벌이는 한 축인 당이 고구려 정벌로 방향을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서기 661-662년 사이에 벌어진 소위 고구려와 당의 2차 전쟁은 세 차례의 양국 간 전면전 가운데 가장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시작되었다. 서기 645년의 1차 고·당 전쟁에서 참혹한 피해를 입으며 철군한 당은 서기 647년부터 14년간 다시 고구려를 공격할 장기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당은 중국의 역대 왕조가 피지배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주변국과 맺는 형식적 상하관계에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실상부한 지배·종속 관계를 원하였다. 특히 고구려와 같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배후에서 당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 정벌을 통해서 정권을 전복하고 이를 직접 지배하려는 욕구가 절실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당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상하관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신라의 위협 세력인 백제를 정벌하여 고구려를 공격할 배후기지를 건설할 계획도 포함되었다.¹⁰⁾

백제는 고구려와 느슨한 동맹관계¹¹⁾였지만 나날이 고구려에게로 기울어져가는 추세여서¹²⁾ 당의 원군이 될 신라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당의 입장에서 백제를 정벌하는 것은 신라를 확실한 자기편으로 만들고, 장차 고구려가 동원할 원군을 제거하는 측면에서도 이익이 된다. 따라서 13만 대군을 출병시켜 백제를 정벌하였고, 이는 결국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최소 3명에서 6명에 이르는 행군대총관과 35군으로 구성된 당의 고구려

9) 웅진강구 전투와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 대해서는 김병남,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126(2012), 280-305쪽 참조.

10) 김창현, 「당의 동북아 전략과 삼국의 대응」, 『군사』 47(2002), 243-244쪽.

11) 이 자체가 당을 자극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1991), 160쪽.

12) 韓昇, 「당과 백제의 전쟁: 배경과 성격」, 『백제부흥운동사연구』(서경, 2004), 74쪽.

원정군은 1개 행군대총관이 거느린 백제 원정군에 비해 그 규모가 월등하였다. 1개 군이 평균 1만~1만 2,500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35만에서 44만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35만의 기록¹³⁾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신라 또한 고구려 남부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맡았고, 당군에 대한 군량도 보급해주었다. 신라는 서기 661년 6월에 당으로부터 군대를 동원했으니, 이에 응해 군사를 지원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하여 7월 17일에 김유신을 비롯한 9총관과 1대감으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문무왕이 직접 시이곡정까지 진격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2차 고·당 전쟁의 결과는 당나라 6개 행군 가운데 방효태와 옥저도 행군의 전멸, 임아상의 죽음과 패강도행군의 궤멸, 누방도행군 정명진의 죽음 등 실로 막대한 전투력의 손실을 맛보았고, 소정방의 평양도행군 또한 평양성 외곽에서 고구려군의 방어벽에 막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끝났다. 당은 전쟁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였고, 엄청난 물량을 동원하여 객관적인 조건에서 볼 때도 승산이 있었지만 수많은 병력을 잃은 채 서기 662년 2월에 퇴각하고 말았다. 그리고 전쟁으로 경제적 손실도 과거 어느 때보다 커서, 이후 민생 안정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후유증을 심하게 겪어야 했다.¹⁴⁾

따라서 당의 고구려 정벌과 실패는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유지에 중요한 정치·외교적 현안으로 작용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백제와 당의 이해 당사자 사이에 접점을 모색할 여지를 던져주었다는 사실이다. 즉, 부흥백제 세력으로서의 당의 고구려 정벌이 곧 백제 땅에 대한 당의 추가적인 군사 투입을 어렵게 하는 호기로 작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을 것이고, 이에 반해 백제 지역에 머무는 당군 수뇌부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의 이해관계는 양 세력의 지도부에게 은연중 절충점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여지를 주어 백제와 백제 주둔 당군 사이에 외교적 교섭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을 갖게 한다.

13) 『삼국유사』 2, 문호왕법민.

14) 고구려와 당의 전쟁과정은 김용만, 「2차 고구려-당 전쟁(661-662)의 진행과정과 의의」, 『민족문화』 27(2004), 1-47쪽 참조.

III. 도침과 복신의 위상과 부흥운동의 항방

전쟁에서 지휘 계통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이곳저곳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기 661년 4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백제 부흥군은 복신과 도침의 양대 세력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도침은 승려였으므로 사찰을 세력 기반으로 부흥군을 조직하였을 것이다. 백제 멸망 당시에는 미륵사와 함께 왕흥사가 국왕의 원찰로서 널리 알려진 대찰임을 상기할 때 도침이 왕흥사와 같은 사찰을 기반¹⁵⁾으로 백제 유민을 모아 부흥운동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크다.¹⁶⁾ 왕흥사는 백제 도성인 사비성의 맞은편 금강 대안에 있는 사찰이고, 왕흥사암성에서 부흥군이 활동했다는 기록으로 보아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도침은 처음 왕흥사를 거점으로 거병하였다가 복신과 합치면서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침이 초기 사비성 공격에 거점이었던 왕흥사를 중심으로 부흥군을 이끌었다면 도침의 활동은 사비남령에 설책한 후 사비성을 공격했던 부흥 세력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침의 활동은 복신과 함께 부흥운동의 양대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특히 사비성의 당군에게는 복신보다도 더 이름을 떨쳤을 것이다.¹⁷⁾

『구당서』 기록에 유독 도침을 강조한 것은 나·당군이 도침이 거느린 부흥군을 웅진강구 전투에서 대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당 측의 기록에서는 도침을 부흥군의 중심인물로 강조했을 것이다. 부흥군을 처음으로 격파한 당군의 지휘관이 유인례였다는 점도 도침을 부흥군의 주요 인물로 간주하는 기록을 남기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비성을 포위한 부흥군은 비단 도침이 거느린 세력만이 아니었다. 복신 또한 중심인물로서 부흥군을 주도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구당서』와 『신당서』 동이열전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면서

15) 군사적 지명이 붙은 부여 군수리사지(軍守里寺址)에 주목하기도 한다. 성주탁, 「도침의 사상적 배경과 부흥활동」, 『호서사학』 19·20(1992), 24쪽.

16) 심정보, 「부흥군의 봉기와 부흥활동의 전개」,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2007), 156쪽.

17) 김영관, 앞의 책, 112-113쪽.

도 부흥군의 지도자를 복신으로 기록하였다. 즉, 『삼국사기』의 찬자는 웅진강구 전투를 지휘한 부흥군의 지도자를 복신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단지 『구당서』나 『신당서』 기록의 도침을 복신으로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다. 『신당서』 유인케열전에는 사비성의 유인원을 포위한 부흥군의 대표자를 복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당서』 유인케열전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사비성 포위를 주도한 인물을 복신으로 본 것은 그 또한 부흥군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엇갈리는 기록은 초기 부흥운동의 중심인물로 도침과 복신이 거의 호각지세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구당서』와 『자치통감』, 「당유인원기공비」에는 도침이 앞서 기록된 반면, 『신당서』와 『삼국사기』에는 복신이 앞서 기록된 것은 복신과 도침이 당 측과 신라 측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당 측에서는 부흥군의 지도자 중에 도침이 복신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였고, 신라 측에서는 복신이 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기에 상반된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¹⁸⁾

이러한 관점은 결국 당시 부흥백제국을 이끌어갈 최고 지도층이 양두 체제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체가 향후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발전에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사료의 부족으로 사실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남아 있는 기록만을 토대로 좀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가설의 진전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초기 부흥백제국의 실세가 2명 존재하고, 그들 또한 각기 승려와 지방 관료로서 출신 성분도 다른 상황이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권력의 ‘양분(兩分)’이다.

㉞ …… 도침 등은 이에 유인원의 포위를 풀고 퇴각하여 임존성을 지켰다. 신라 병사들은 군량이 다하여 회군하였는데 이때가 용삭 원년 3월이었다. 이에 도침은 영군장군이라고 자칭하고 복신은 삼잠장군이라고 자칭하여 반란을 하거나 도망한 자들을 초무하니 세력이 더욱 늘어났다. 사람을 보내 유인케에게 “대당과 신라가 약속하여 백제인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인 다음에 나라는 신라에 넘긴다고

18) 김영관, 앞의 책, 121쪽.

들었다. 그렇게 죽음을 맞는 것이 어찌 싸우다 죽는 것과 같겠는가? 그래서 뿔뿔 뿔뿔 뿔뿔 스스로 고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유인케는 글을 지어 상세히 화복을 설명하고 사절을 보내 그들을 설득하였다. 도침 등은 무리가 많은 것만 믿고 교만하여 유인케가 보낸 사절을 외관에 둔 채 사람을 시켜 “사절의 관직이 낫다. 나는 일국의 대장인데, 친히 만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전하며, 답서도 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얼마 있다가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고 그 무리를 병합하였다. 부여풍은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었다. …… (『구당서』 199 상, 「열전」 149,동이 백제)

㉔ …… 도침은 임존성을 지키면서 영군장군을 자칭하고 복신은 상삼장군을 칭하였다. 유인케에게 “당과 신라가 약조하여 백제를 격파하면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나라를 나누어 갖기로 했다고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니 싸우는 게 낫다”고 말하였다. 유인케는 사자에게 글을 보내서 답하였으나, 도침은 매우 거만하여 사자를 외관에 두고 업신여기는 말투로 “사자의 관직이 낫다. 나는 일국의 대장인데 예의상으로도 만나보는 것은 당치 않다”고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유인케는 병력이 적어서 군사들을 쉬게 하며 힘을 기르는 한편, 신라에게 합동해서 쳐들어가고 요청하였다. 복신은 얼마 후 도침을 죽이고 그 병력을 차지했는데, 부여풍은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 (『신당서』 220, 「열전」 145,동이 백제)

위의 『구당서』와 『신당서』 기록에 보이듯이 도침은 영군장군¹⁹⁾, 복신은 상삼장군으로 자칭하였으며, 정황상 도침은 임존성을 근거로 하였고, 복신은 주류성 및 중방 고사성 일대에 머물렀을 상황에서 부흥 세력 또한 각자 전쟁의 진행과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흥백제국의 향후 정국을 어떻게 보고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지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도침은 자신의 세력권인 사비와 그 주변의 임존성을 근거로 당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형태이고, 복신은 주류성과 남방을 근거로 신라와 왜에 대한 일을 전담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한편 위의 기록들에 따르면 서기 661년 3-4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도침과 복신은 각기 장군을 칭하며 더욱 세력을 늘려갔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백제 부흥군은 2만 이상의 신라 정벌군을 물리침으로써 남방 지역을 복속하는 등 일시에 세력을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사비와 웅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는 ‘남방제성’이 모두 복신

19) 영군장군을 부흥군 총수 지위로 보기도 한다. 성주탁, 앞의 논문, 29쪽.

등의 부흥군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사비와 웅진 등 백제 심장부가 당군의 수중에 있는 한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임을 뜻한다.

다시 말해 두량이·고사비성 전투 결과 나·당 진압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지역 세력의 호응 아래 부흥 세력의 결집이 진행되는 등 확산일로에 있는 부흥백제국 건설의 순간이었기에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신라군의 공격과 퇴각 과정에서 전쟁터의 중심에 있던 중방 고사성 일대와 인근의 익산 등지가 초토화되었고²⁰⁾, 사비 등 금강 유역 일대에는 여전히 당군이 남은 상태였다. 그러므로 백제 부흥군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공책을 구사하여 빠른 시일 내로 나·당군을 백제 땅에서 완전 축출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서서히 파리를 틀기 시작하였을 것이다.²¹⁾

그런 와중인 서기 661년 6월에 백제를 유리하게 만들 대외적인 정치 상황이 전개되었다. 우선 신라는 무열왕이 죽고 김유신 등의 세력을 기반으로 문무왕이 즉위하였으나 지지기반의 확립과 왕권 안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²²⁾ 또 당도 고구려 정벌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백제 측에서 적극적으로 당과 외교 교섭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의 기록에는 사람을 먼저 유인케에게 보낸 것이 백제 측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이 외교 교섭을 추진한 주체는 누구일까? 그것은 아마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군장군으로서 자신의 세력권인 사비와 그 주변의 임존성을 근거로 한 도침이 아닐까 추측된다.²³⁾

20) 『삼국사기』 5, 『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8년 6월. “大官寺井水爲血 金馬郡地流血廣五步”

21) 웅진강구 전투 패배가 모든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할 정도의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양종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옛보기』, 서경, 2008, 104쪽)이라 본 견해도 결국은 이러한 인식의 연장이다.

22) 김수태,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일조각, 1993), 17쪽.

23) 도침이 당군과 외교적 접촉을 시도할 수 있었던 내부적 배경 중의 하나는 복신이 ‘남방제성’의 호응을 토대로 이들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에 몰두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백제는 중앙정부와 지배층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려 지방 세력은 각기 독자적으로 자존(自存)을 꾸리는 체제였다. 그러나 서기 661년 4월 이후 사비 정부를 대체할 주류 성 체제가 어느 정도 구현되자 당과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정국을 관망하던 각 지역 세력들이 일순간 부흥군에 호응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복신은 일단 백제 남부의 방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네트워크화에 주력하였다. 각 세력이 네트워크화하면 하나하나 독자적일 때보다 효과가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었고, 각 지역이 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면 방어 면에서의 효과도 크게 향상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복신은 그 시간을 잃어버리도록 놔둘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임존성 방면에서 도침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도 도침의 외교 교섭이

이러한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도침과 복신의 성향이나 능력에 대한 유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서기 661년 2-4월 나·당군과 부흥군 사이의 전투과정을 복기해보면, 당시 백제 부흥 세력은 사비 포위 상황에서 유인제가 주도한 신라군과의 전투에 2단계로 대응하였다. 우선 첫 번째는 도침 등의 일군으로 웅진 방면에서 기다리다가 나·당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도침군은 일방적인 패배를 당하고, 임존성 방면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에 부흥 세력은 군대를 물려 중방 고사성 일대로 내려갔던 것이다. 이를 이끌던 복신은 결국 두량이·고사비·주류성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신라군을 상대로 승리하여 '남방제성의 호응을 받아 부흥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보면 전투에서는 도침보다 복신이 월등한 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임존성에서 거의할 때의 복신과 도침의 연합은 도침이 이론적인 부분에서 복신이 실제적인 행동 면에서 조합을 이룬 것이 아닐까 한다. 당 「유인원기공비」에서 보듯이, 백제군이 사비성 주변에 목책을 세우고 영채를 즐비하게 늘어놓은 채 당군을 압도하였고, 구름사다리(운제), 포차(발석차) 등의 공성무기를 동원하고 땅굴을 파는 등 조직적인 공세를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전개하였던 원동력은 복신의 군사적 역량²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진중에 '백제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자(興亡繼絶)'는 의식과 선동을 통해 부흥군의 연대를 강화하고 적의 사기를 꺾으려 한 노력은 바로 도침의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그가 승려였다는 사실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 이미 신라의 의상이 당 유학 중 백제 침공을 위한 군사 동원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급거 귀국하였던 예²⁵⁾에서 보듯이 삼국시대에는 국왕 측근의 전략가로서 승려의 역할이 막중하였다.²⁶⁾ 이처럼 삼국의 승려를 동아시아 최대의 인적 네트워크 속 상층부를 이루는 고급 지식인으로 본다면, 이를 도침에게 대입해도

진행된 가정에 도움이 될 하나의 추정이지 않을까 한다.

24)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172쪽.

25) 『삼국유사』 4, 「의해」 5, 의상전교.

26)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푸른역사, 1997), 236쪽.

그다지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도침의 사고는 전쟁의 가장 큰 승리는 싸우지 않고 해결함과 연결되었을 것이다. 즉, 도침이 보기에 사람들은 전쟁이란 인류 최대의 악업에서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한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 여부보다는 비록 악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그를 토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평화가 이어지는가에 있음을 자각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침략자의 무리와는 강화는 안 된다'거나 '수도 사비성을 백제인의 피를 흘려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등의 과격한 논리에 치우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한 사고로 이른 시기부터 도침이 바로 당군의 세력과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는 바로 보면 이는 비밀 접촉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 시기에는 아직 양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럴 경우 접촉은 우선 상대가 의혹을 품고 싶어도 품을 수 없는 순수한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철칙이다.

그런데 서기 661년 6월에 개시된 당의 고구려 정벌은 백제 부흥군이나 당 주둔군의 존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당의 고구려 정벌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백제 주둔 당군의 철수가 하나의 중요한 관건임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㊸ …… 처음에 유인원과 유인케 등이 웅진성에 주둔했다. 황제가 유인원에게 칙서를 내려 "평양으로 갔던 군사가 되돌아왔는바, 한 성을 혼자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신라로 옮겨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김법민이 경들의 주둔을 의뢰해오거든 그대로 머물러도 좋지만 만약 원하지 않거든 바로 바다를 건너 돌아오라"고 하였다. 이에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자치통감』 200, 「당기」 16, 고종 上의 下)

위의 기록에서 보듯이 당나라 조정도 공식적으로 고구려 원정이 실패한 이후 당 주둔군의 철군을 명령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당 고종은 유인원에게 사비성 하나만 고수하는 것은 전략상으로도 전술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 일단 군대를 안전한 신라 땅으로 옮기고, 만약 신라에서 당군의 주둔을 요구한다면 신라 땅에 머물러 있어도 좋지만 그것도 군사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 당으로 돌아오라(宣泛海還)고 했던 것이다.

이는 서기 660년 12월에 당이 고구려 정벌을 결의하였을 당시부터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다. 소정방의 백제 원정군이 조속히 귀국한 것 자체가 고구려 원정과 무관하지 않았고, 서기 661년 6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고구려 원정이 순조롭지 못하여 신라군의 참전까지 요청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 원정 자체가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경우 전쟁의 후유증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이고, 그에 따른 첫 번째 조처는 전쟁과 관련된 군사력의 철수 내지 축소가 우선시됨은 동서고금의 전략이다. 백제 지역을 전략 거점으로 한 평양 직공책(直攻策)이 실패하였으므로 당 고종은 고구려 공격에 전력을 집중²⁷⁾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백제 땅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고구려 원정과 연동된 백제 주둔 당군에게도 여파가 미쳤을 것이고, 이와 연관된 백제, 당, 신라의 관계자라면 이러한 정국의 동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태였다.

실제 당시의 실상 또한 당군의 철군이 불가피함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㉞ (인덕 원년) 겨울 10월 경진에 검교웅진도독 유인제가 글을 올려 “신이 삼가 보건대, 현재 여기에서 지키는 병사들은 피곤에 지쳐 수척한 자가 많고, 용맹하고 건장한 자는 적습니다. 옷가지조차 다 떨어져서 오직 서쪽으로 돌아가기만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 공을 세울 마음은 없습니다. 신이 그들에게 ‘지난날에 중국에 있을 적에는 백성들이 사람들마다 모집에 응하면서 앞 다투어 정벌하는 데 참여하려고 하면서 혹 스스로 옷과 양식을 마련해 가겠다고 청하면서 의로운 정벌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현재 여기에 있는 병사들은 이처럼 나약한 것인가?’ 하고 물으니, 모두들 ‘…… 현경 5년(660) 이후로는 정벌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무슨 연유로 죽은 것인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주현에서 매번 백성들을 징발하여 병사로 삼으면서는 건장한 사람이면서 집에 재산이 있는 자는 아래에서 일을 보는 아전에게 뇌물을 바치고 모두 도망쳐 숨어서 모면하였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몸이 비록 늙고 약하더라도 징발되기만 하면 곧바로 가야만 했다. 또 현경 5년에 내린 백제를 격파한 데 대한 훈작 및 평양으로 가서 고전한 데 대한 훈작은 당시 장수들이 호령을 내릴 적에는 공훈과 상을 주겠다고 하면서 온갖 감언이설을 하였다. 그런데 서쪽 해안에 도착한 뒤부터는 오직 차꼬를 채우고 금고(禁錮)시켰으며, 상으로 준 것을 빼앗고 관작을 파하였다. 그리고 주현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다투달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공사 간에 곤폐를 당함이 이루 다 말할 수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바다 서쪽에서 출발하는 날에도 이미 스스로 도망치거나 자살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다 바깥에 이르러서만 그런

27) 김종복,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2010), 78쪽.

것이 아니다. 또 본디 정벌하는 데 참여한 것은 훈작과 품계를 받아 장차 영예를 누리고자 해서였다. 그런데 해마다 출정하면서도 훈작과 품계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배와 수레를 끌게 하여 고생하는 것이 백정(白丁)과 차이가 없었다. 백성들이 정벌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모두가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또 ‘예전에는 5년간을 머물러 진수하면서도 오히려 제대로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무슨 이유에서 이처럼 고단하게 되었는가?’라고 물으니, 모두들 ‘처음에 집을 떠나올 적에는 1년을 지내는 데 필요한 짐만 꾸려 가지고 오게 하였다. 그런데 집을 떠난 지가 이미 2년이나 지났는데도 돌아갈 기약은 없어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군사들에게 남은 옷을 조사해보니, 이번 겨울까지는 근근이 입을 수 있으나 내년 가을부터는 전혀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폐하께서 만약 이들을 해외에 머물게 하고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하신다면, 백제와 고구려는 예전부터 서로를 성원(聲援)하였고, 왜인들은 비록 멀리 떨어졌으나 역시 백제와 서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백제에 군사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백제는 도로 하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백제를 진수하고 둔전을 설치한 것은 휘하의 군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한 데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사들 사이에 이미 이런 의논이 있으니, 어찌 공을 이룰 가망이 있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고종이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 (『자치통감』 200, 「당기」 16, 고종 上의 下)

위 기록에 의하면 인덕 원년(664) 10월 당시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제에 주둔 중인 당군의 실상은 가난한 자들로 아전에게 뇌물을 바치지 못해 징발되었으며, 백제에 도달한 이후에는 감금 상태에서 군역에 종사하였고, 처음 징발당했을 때도 1년을 기한으로 왔음에도 2년째 머무르는 등으로 인하여 “피곤에 지쳐 수척한 자가 많고, 용맹하고 건장한 자는 적으며, 옷가지조차 다 떨어져서 오직 서쪽으로 돌아가기만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 공을 세울 마음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처럼 장기 누적된 당군의 불만 상황은 이미 백제 주둔 초기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것이므로 서기 661년 당시 당군 측에서도 백제의 외교 교섭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앞의 사료 ㉗, ㉘에 따르면 백제와 당 주둔군 사이의 교섭은 결국 결렬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외교 교섭은 상호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IV. 신라의 대응과 도침의 몰락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과 고구려의 전쟁은 당의 한반도 전략에 일대 전환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는 백제 부흥에 유리한 환경과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이에 부흥 세력은 당과 외교 교섭을 통한 철군과 국가 재건을 모색하였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백제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신라로서는 상황이 급박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처음 당과 동맹을 맺을 당시의 협약이 고구려 영토는 당이, 백제 영토는 신라가 확보한다는 것이었지만²⁸⁾, 실제 백제 영토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신라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당과 부흥백제 세력 사이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상황으로 옮겨가는 낌새가 여실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의 동맹관계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여 서로 존중하는 정신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공포를 매개로 하거나 지금으로서는 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맺어둔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로서도 실제적인 행보를 통한 압박과 항변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기록이 바로 김유신 열전이다.

㉞ (문무왕 원년) 6월에 당나라 고종 황제가 장군 소정방 등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하러 할 때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하던 김인문이 명을 받고 돌아와 출병 상황을 알리고 아울러 군사를 내어 함께 치기를 권하였다. 이에 문무대왕은 유신, 인문, 문훈 등을 인솔하여 많은 병사를 출동시켜 고구려로 향하였다. (왕이) 남천주로 행차할 때 유인원도 군사를 거느리고 사비에서 배를 타고 해포에 상륙하여서 또한 남천주에 진을 쳤다. 그때 담당 관청이 “앞길에 백제의 잔적이 웅산성에 모여 있어 길을 막으니 곧바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유신이 군사를 진격시켜 성을 포위하고 사람을 시켜 성 아래에 가까이 가게 하여 적장에게 “너희 나라가 공손하지 못하여 대국의 토벌을 당하였다. 명령을 따르는 자는 상을 주겠고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 지금 너희들은 홀로 외로운 성을 지켜 어찌하고자 함인가? 끝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니 성에서 나와 항복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28) 서기 659년에 세운 당의 '선공백제(先攻百濟)' 전략은 단순히 고구려 정복을 위한 일시적 군사 거점 활용이 아닌 기미부주제 적용을 통한 직접 지배 의사를 가진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최현화, 「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 전략」, 『역사와 현실』 61(2006), 160-161쪽.

뿐만 아니라 부귀도 기약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니, 적들이 큰 소리로 “비록 조그만 성이지만 군사와 식량이 모두 족하며, 장수와 병졸이 의롭고 용기가 있으니 차라리 죽도록 싸울지언정 맹세코 살아 항복하지는 않겠다”고 외쳤다. 유신이 웃으며 “궁지에 몰린 새와 짐승은 오히려 스스로를 구할 줄 안다고 하는데 이 경우를 두고 말함이라!”고 말하고는 이에 깃발을 흔들고 북을 쳐 공격하였다. 대왕은 높은 곳에 올라 싸우는 군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격려하니 병사들이 모두 분발해서 공격하여 창끝과 칼날을 겁내지 않았다. 9월 27일에 성을 함락하자 적의 장수를 잡아 처형하고 그 백성은 놓아주었다. 공에 따라 장수와 병사에게 상을 주었고 유인원도 비단을 차등 있게 나누어주었다. 이에 군사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을 먹인 후 가서 당나라 병사와 합치고자 하였다. (『삼국사기』 42, 「열전」 2, 김유신 중)

위의 기록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유인원의 행동반경이다. 익히 알다시피 그는 서기 660년 백제부성인 사비에 주둔하였다. 이후 서기 661년 6월에도 사비에 있었다. 그런 유인원이 위의 기록에는 소정방의 평양성 공격에 관할 부대를 동원해 사비성에서 배를 띄워 혜포(鞋浦, 남양만)²⁹⁾에 상륙한 후 신라와 함께 남천주(경기도 이천)에 군영을 차렸다는 것이다. 이때 유인원이 소수의 병력을 동원해서 상징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³⁰⁾ 백제 부흥군과 대치하던 당나라 장군이 일부 부대를 이끌고 진영을 나와 평양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남천주에 나타났다는 기록대로라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만드는 파장은 그리 간단하게 치부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인 사료 ㉮에는 신라왕이 여러 장군을 이끌고 시이곡정(始飴谷停)에 이르렀다가 담당 부서의 급보로 백제 웅산성을 쳤다고 하였으니 신라군이 아직 남천주에 이르지 못한 것이 확실하므로 유인원의 군대가 남천주에 주둔하였다는 표현도 사실성이 의심스럽다거나³¹⁾, 이 때 유인원이 남천정(南川停)이 아니라 시이곡정에 와서 신라군과 같이 행군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³²⁾

하지만 서기 662년 2월에도 김유신이 신라군을 거느리고 평양성의 소정방군에게 군량을 조달할 때 신라군뿐만 아니라 유인원이 이끈 백제부

29) 노태돈, 앞의 책, 163쪽.

30)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의 성세와 당군의 대응」, 『한국고대사연구』 35(2004), 175쪽.

3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사자료역주집 - 한국편 I -』(2008), 546쪽.

32) 이병도, 『삼국사기』 하(을유문화사, 1990), 305쪽.

성의 군사들도 참여했다고 나타난 것³³⁾을 보면, 유인원의 군사 활동은 사뭇 활발하였던 것이 사실인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당 주둔군의 활동은 결국 백제(도침 측)와 당(주둔군) 사이에 외교 교섭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반영하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도 있다.

이 시기 백제 측은 교섭을 통해 사료 ㉔처럼 “당과 신라가 약조하기를 백제를 격파하면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나라를 나누어 갖기로 했다고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싸우느니만 못하다”고 하여, 자신들의 봉기 이유와 사료 ㉔처럼 백제 주둔 당군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조속히 자유롭게 “바다를 건너 돌아갈” 것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을 것이다.

당 측도 유인위가 “글을 지어 상세히 회복을 설명하고 사절을 보내 그들을 설득하였다”는 것을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외교 협상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사전 준비나 본국과의 협의 등을 빌미로 당 주둔군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묵과하는 이면의 양해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료 ㉕나 김인문 열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인원의 당군의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와 당의 협상 분위기는 신라 측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당혹한 결과였을 것이다.

남방의 여러 성이 일시에 반란을 일으켜 모두 복신에게 속하니 복신이 승세를 타서 부성을 다시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웅진으로 군량을 운반하는 길이 끊어져 소금과 간장이 다 떨어졌다.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당시 백제부성은 부흥군의 포위로 군량 운송로가 차단되어 간신히 신라가 사잇길을 이용하여 물자를 보낼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다.³⁴⁾ 이러한 상황인데도 서기 661년 6월에 신라군의 참전 요청에 따라 문무왕은 7월에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 원정군을 지원하는 길에 나섰던 참이다. 여기에는 대당·귀당·상주정·하주정·남천주정·수약주정·하서주정·서당·낭당·계금당 등 10개 군단이 동원되었고, 대장군 김유

33) 『삼국사기』 44, 「열전」 4, 김인문.

34) 노중국, 앞의 책, 226쪽.

신을 필두로 24명의 장군이 출정하였다. 장군 1인당 1,500명을 거느렸다고 볼 경우 병력 수는 3만 6,000명이다. 신라의 대규모 병력 동원 사례에서 치중병, 즉 전투지원병 30%를 더하여 계산하면 군사 규모는 4만 6,800명으로³⁵⁾, 이제까지 신라가 동원한 군대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그런 신라 측 앞에 백제 부흥군의 포위로 꼼짝달싹 못하리라 여겨졌던 사비성의 당나라군이 남천주에 주둔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이 전달되었다. 그 순간 신라군의 진격 방향은 바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신라군이 “앞길에 백제의 잔적”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격 방향을 돌린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당나라의 기대와 달리 취한 실리적인 행보 이전에 당과 백제의 밀착을 견제할 필요성이 우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백제 부흥군은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대전 부근에 계족산성·이현동산성·장동산성·성치산성·질현성·연축동산성 등을 축조하여 대비하였는데, 부흥군이 점거한 곳은 기존에 있던 산성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활동 영역도 백제의 성곽 분포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³⁶⁾ 이것은 부흥군이 이들 성곽을 점령하여 신라와 당군으로 이어지는 연결선을 차단하여 고립을 도모³⁷⁾하였던 것을 뜻하며, 이는 좀 더 나아가 생각하면 신라와 당이 직접 대화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백제의 미래가 재조정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웅산성 전투는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

㉞ 원년(661) 6월에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하던 인문과 유돈 등이 돌아와 왕에게 “황제께서 이미 소정방을 보내 수군과 육군 35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치게 하고, 마침내 왕께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로 응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왕께서] 비록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지만 무거운 황제의 칙명을 여기기는 어렵습니다”라고 고하였다. 가을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삼고, 인문·진주·흠돌을 대당 장군으로, 친존·죽지·친품을 귀당 총관으로, 품일·충상·의복을 상주 총관으로, 진흠·중신·자간을 하주 총관으로, 군관·수세·고순을 남천주 총관으로, 술실·달관·문영을 수약주 총관으로, 문훈·진순을 하서주 총관으로, 진복을 서당 총관으로, 의광을 낭당 총관으로, 위지를 계급 대감으로 삼았다. 8월에 대왕이 여러 장수를

35) 이상훈,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2011), 185-187쪽.

36)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혜안, 2006), 500쪽.

37) 서정석, 「부흥운동기 백제의 군사 활동과 산성」, 『백제부흥운동사연구』(서경, 2004), 162쪽.

거느리고 시이곡정에 이르러 머물렀다. 사자가 와서 아뢰기를 “백제의 남은 적들이 웅산성을 차지하여 길을 막고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왕이 우선 사람을 보내 타일렀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9월 19일에 대왕이 웅현정(熊峴亭)에 나아가 여러 총관과 대감들을 모아놓고 몸소 가서 서약케 하였다. 25일에 진군하여 웅산성을 에워쌌다. 27일에 이르러 먼저 큰 목책을 불사르고 수천 명을 베어 죽이고 드디어 항복시켰다. 전공을 논하여, 각간과 이찬으로서 총관인 사람에게는 검을 주고, 잡찬·파진찬·대아찬으로서 총관인 사람에게는 창을 주었으며, 그 이하는 각각 관등 한 등급씩을 올려주었다. 웅현성을 쌓았다. 상주 총관 품일이 일모산군 태수 대당과 사시산군 태수 철천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우술성을 쳐서 1,000명의 목을 베었다. 백제의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가 무리와 더불어 피하여 항복하였으므로 조복에게 급찬의 관등을 주고 고타야군 태수로 삼았으며, 파가에게는 급찬의 관등과 아울러 토지와 집, 옷 등을 내려주었다. 겨울 10월 29일에 대왕이 당나라 황제의 사신이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마침내 서울로 돌아왔다.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1년)

웅산성(계족산성)³⁸⁾ 전투에 대한 기록은 앞선 김유신 열전의 사료 ㉮와 함께 위의 사료 ㉮에 나오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 성은 문의-청주를 거쳐 복상하는 진로를 감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은-옥천-회덕-유성-공주에 이르는 이른바 웅진도를 차단할 위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므로³⁹⁾ 상당한 부흥군이 주둔하였다는 사실이다. 사료 ㉮에 따르면 ‘수천 명을 베어 죽인(殺數千人)’ 후에야 항복시켰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성에 매우 많은 군대가 주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성안에는 “군사와 식량이 모두 풍족하다(兵食俱足)”고 한 것으로 보아 장기간 농성을 벌일 것에 대비한 군량도 충분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불어 성에 주둔한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하였고, 지휘하는 장군의 마음 자세도 확고한 상태였다. 우술성 공격 시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를 따르는 무리가 항복하였던 것과 달리 사료 ㉮와 ㉮의 어디에도 웅산성이 함락되기 전까지 신라에 투항한 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웅산성에는 대책(大冊)을 비롯하여 여러 책이 설치되었다. 이는 성의

38) 심정보, 「백제 부흥군의 주요 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1983), 167쪽; 이도화, 앞의 책, 122쪽. 한편 이에 대해서는 魯山城(노성산성: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으로 보거나(池內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 2冊, 吉川弘文館, 1950, 128-135쪽), 회덕산성(연축동산성)으로 보기도 한다(노중국, 앞의 책, 202쪽).

39)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2008), 316쪽.

방어 시설이 상당히 갖추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웅산성은 지형학적인 요충지로서의 위치와 견고한 방어 시설, 중앙정부의 기능이 붕괴된 상태에서도 자급할 수 있는 풍족한 식량과 그에 따른 사기충천한 수많은 군사, 뛰어난 지휘관 등으로 어우러져 있어 쉽게 항복시킬 만한 성이 아니었다. 아울러 이러한 여러 조건은 그만큼 웅산성이 백제 부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동시에 부흥 세력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신라도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사료 ㉞에서 보듯이 문무왕 자신이 서기 661년 9월 19일에 웅현정에서 각 부대의 총관과 대감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논의한 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을 친히 맹세하게 하였다. 이 서약은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웅산성을 함락시키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신라에게 웅산성 공격은 전해에 있었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의 재판이었다. 당시 2만 이상의 정규군을 동원하고도 백제 부흥군을 앞잡아 본 결과 참패를 불러왔고, 그것은 들불처럼 번진 부흥 세력의 성장을 야기하였다. 그 때문에 부흥 세력은 이를 바탕으로 당과 직접 외교 채널을 통해 당당히 복국(復國)을 부르짖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웅산성 전투에 임하는 신라의 자세는 단호하고 비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의를 다진 신라군은 9월 25일에 웅산성으로 진격하여 성을 포위하였다. 대군을 동원한 신라로서는 군사 수에서 오는 자신감과 결부되어 싸우지 않고 성을 접수하기를 원했겠지만 이에 대항하는 부흥군도 어느 정도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였다. 따라서 부흥군은 이후 개시된 신라의 공격을 빈번히 물리치면서 신라군의 희생을 늘리고 사기도 떨어뜨렸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신라 문무왕은 친히 눈물로써 사졸들을 격려하였다. 문무왕의 눈물 어린 독전을 받은 신라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공격에 가담하였고, 그 결과 부흥군은 수에 밀리고 기세에 눌렸다. 이리하여 9월 27일에 웅산성의 대책이 불타면서 성은 함락되고 말았으며, 성을 사수하던 장수들과 수천 명의 병사가 참살되었다. 이처럼 웅산성 전투는 부흥군이 치른 전투 가운데 가장 치열하고 장렬한 전투였다.

한편 위의 기록에 따르면 웅산성 함락 이후 신라는 계속해서 우술성(연축동산성: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수척골)⁴⁰⁾마저 공격하였다. 신라군이

웅산성을 격파한 후 우술성을 공격한 것으로 미루어 두 성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고 추측된다. 우술성을 지키던 부흥군 장군은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 등이었다. 이들이 신라군과 싸울 때가 서기 661년 9월이므로 부흥군을 일으킨 시기는 이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도 우술성을 거점으로 하여 독자적으로 부흥군을 일으킨 후 부흥 세력과 일정한 연계⁴⁰⁾를 맺지 않았을까 한다.

신라군이 공격해 오자 우술성의 부흥군도 완강히 저항하였다. 그러나 웅산성을 함락시킨 후 사기가 오른 신라군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어려웠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달솔 조복과 은솔 파가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리를 이끌고 신라군에 투항하고 말았다. 조복과 파가가 대열에서 이탈하여 신라에 항복하자 부흥군의 저항은 현저히 약화되어 우술성은 함락되었다. 이때 참수된 부흥군이 1,000여 명이나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우술성에도 적지 않은 군대가 주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충지인 웅산성이 함락되고 이어 우술성마저 함락되자 부흥군은 큰 타격을 입었다. 두 전투에서 전사한 군사 숫자만 해도 수천 명이나 되었고, 더구나 이제까지 당군의 목을 조르던 군량수송로마저 뚫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흥군의 향후 작전 운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웅산성 전투의 더욱 중요한 결과는 따로 있었다. 즉, 이를 통해 신라는 백제와 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게 된 것이다. 신라가 당 주둔군에 직접적인 원조가 가능한 상태를 복원하였다는 사실은, 이로써 백제와 당의 유착을 방지하고 다시 나·당 동맹의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사료 ㉞의 웅산성 전투로부터 한 달 후인 10월 29일에 도착한 당의 사신은 신라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당 조정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백제 측의 입장에 서면, 풍왕 정권의 수립(661년 9월)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국가 재건의 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드러났음을 뜻한다. 당시 백제는 풍왕의 귀환과 등극이라는 일정과 함께 지역 세력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가부흥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백제와

40) 심정보, 「백제의 부흥운동」, 『충청남도지』 4(2006), 490쪽; 문안식, 앞의 책, 501쪽. 한편 계족산성 발굴조사에서 ‘雨述’, ‘雨述天國’ 등의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충남대학교 박물관·대전시, 『계족산성 발굴조사약보고』, 1998, 8-9쪽)되어 우술성을 계족산성으로 보기도 한다(노중국, 앞의 책, 182쪽).

41) 노중국, 위의 책, 230쪽.

당의 교섭 진행과 그에 따른 신라의 반발은 유기적 지역 네트워크가 공고해지기 전에 한 부분을 와해시키고 말았고, 나아가 지역 부흥 세력의 일부가 다시 신라에 투항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결속마저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술성의 조복과 파가의 투항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러한 예는 서기 662년 2월에 탐라국주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신라에 항복하였다는 기록⁴²⁾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같은 해 3월에 신라 문무왕이 죄수를 크게 사면하면서 “이미 백제를 평정하였으므로 담당 부서는 큰 잔치를 베풀라”⁴³⁾고 지시한 것은 부흥백제 세력을 더 이상 위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⁴⁴⁾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전개는 결국 풍왕 시기 초반을 주도하였을 도침의 정국 운영에 총체적 결함이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이 결국 도침의 몰락과 복신이 주도하는 부흥백제국의 전개가 나타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물론 도침과 복신의 불화는 서로 영군장군과 상잠장군이라 자호하는 가운데 부흥군에 대한 지휘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것이다. 물론 서기 661년 2월의 웅진강구 전투에서 도침이 당군에게 대패한 일은 복신이 도침을 제거하는 데 좋은 빌미가 되었고, 복신은 웅진강구 전투에서의 패배를 물어 도침을 제거하였을 수도 있다.⁴⁵⁾

하지만 웅진강구 전투는 연이은 두량이·주류성 전투의 승리로 상쇄될 만한 것이었고, 이후 도침의 정국 주도로 보아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과정이 쌓여 불신이 드러났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오히려 서기 661년 4월 두량이·주류성 전투의 승리 이후, 서기 661년 6월 신라 무열왕의 사망과 문무왕의 즉위, 그리고 당의 고구려 정벌이라는 유리한 대내외적인 환경에서, 대내적으로는 흩어진 지역 세력을 규합하여 국가의 부흥을 공식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풍왕의 귀환으로 백제국의 성립을 고착화하려는 정치 일정이 모두 흐트러져버린 것에

42)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2월.

43)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3월.

44) 이도학, 앞의 책, 126쪽.

45)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의 실패 원인」, 『선사와 고대』 19(2003), 287쪽. 노중국 또한 웅진강구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도침이 최고사령관과 같은 행세를 한 것이 살해의 주요 원인이라 보았다(「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101쪽). 이와는 달리 심정보는 복신은 풍왕을 상징적인 존재로만 여겼는데 도침은 각dot이 군신의 예를 갖추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서 유인계의 사자를 만난 것을 이적행위라는 명분으로 살해하였다고 보았다(심정보, 앞의 논문, 2007, 204쪽).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럴 경우 웅산성 및 우술성 전투의 결과는 부흥백제국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복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도침 제거는 이를 계기로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백제 부흥운동은 서기 661년 6월에 신라 무열왕의 죽음과 문무왕의 즉위라는 정치 변동과 전쟁의 한 축인 당의 고구려 정벌이란 방향 선회의 유리한 상황 아래 있었다. 서기 661년에 시작된 2차 고·당 전쟁은 당의 철저한 준비와 물량 동원에도 불구하고 서기 662년 2월에 실패로 끝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부흥백제국의 진행에 중요한 정치·외교적 현안으로 작용하였다. 당의 고구려 정벌은 곧 백제 땅에 대한 당의 추가적인 군사 투입을 어렵게 하는 호기로 작용하였고, 더불어 백제 지역에 머무는 당군 수뇌부에게도 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 생존을 모색할 위기에 직면케 하였다. 즉, 백제를 거점으로 한 평양 직공책(直攻策)의 실패는 향후 고구려 공격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백제 땅의 포기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는 부흥 세력과 당 지도부 사이에 외교적 교섭이 진행되었을 개연성을 갖게 한다.

이런 경우 백제 측에서 외교 교섭을 추진할 주체는 영군장군으로서 자신의 세력권인 사비와 그 주변의 임존성을 근거로 한 도침이지 않을까 한다. 부흥운동에서 복신은 군사적 역량이 출중하였으나, ‘백제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자(興亡繼絶)’는 의식과 선동을 통해 부흥군의 연대를 강화하고 적의 사기를 꺾으려 한 노력은 바로 도침의 전략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인한다. 이러한 능력은 그가 승리했다는 사실과 일정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도침은 전쟁의 가장 큰 승리를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라 보았을 것이다. 그는 전쟁이란 승패 여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해결하고 그를 토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평화가 이어지게 하는 것인가에 있음을 자각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전개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신라에게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백제 영토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신라의 의향과는

상관없이 당과 부흥백제 세력 사이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김새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신라는 평양성의 당군을 구원하기 위해 조직된 군대를 돌려 부흥 세력을 공격하기 이른다. 종래 이에 대해서는 당나라의 기대와 달리 실리적인 행보를 취한 것과 연결시켰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당과 백제의 밀착을 견제할 필요성에서 나온 특단의 조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한 듯 하다.

서기 661년 9월 27일에 백제 웅산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들과 수천 명의 병사를 참살하였으며, 다시 인근의 우술성마저 함락시켜 부흥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를 통해 신라는 백제와 당의 유착을 방지하고 다시 나·당 동맹의 관계를 실력 행사로 재확인한 것이었다.

결국 이 웅산성 전투는 풍왕 정권의 수립(661년 9월)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백제의 국가 재건 일정을 송두리째 흩어놓는 중대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당시 백제는 부여풍의 귀환과 등국이라는 일정과 함께 지역 세력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가 부흥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백제와 당의 교섭 진행과 그에 따른 신라의 반발은 유기적 지역 네트워크가 공고해지기 전에 한 부분을 와해시키고 말았으며, 나아가 지역 부흥 세력의 일부가 다시 신라에 투항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결속마저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내치’와 ‘외교’는 똑같은 정치의 연장선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국내 정치는 성심성의껏 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는다. 비록 기득권의 이익과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다수의 사람들이 호응하고, 국익이란 차원에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출하기도 쉽다. 그러나 외교는 다른 국가나 사람과 상대하기에 이해를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 성심성의껏 하더라도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외교 담당자에게는 내정을 담당하는 자 이상의 현명함이 요구되며, 때에 따라서는 교활하거나 악랄하다고 비칠 만큼의 과감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도침의 대응은 사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상대인 유인케보다 집요함이 부족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풍왕 시기 초반을 주도하였을 도침의 정국 운영에 총체적 결함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다.

역사에서 필요 없는 전쟁이나 외교와 필요한 외교나 전쟁을 쉽게 판별할 수는 없다. 다만 너무 깊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융성기에는 시대가 편을 들어주니 상관없다. 그런 면에서 백제 부흥운동 초기의 주도권은 도침에게 있었다. 하지만 하강기에는 시대가 편을 들어주리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동의 처지가 되면 벌써 주도권을 잃어버린다. 바로 이 지점, 즉 웅산성과 우술성의 함락 이후 도침은 피동의 처지에 놓였고, 주도권은 복신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복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도침 제거가 실행되었고, 결국 도침의 몰락과 복신이 주도하는 부흥백제국의 전개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구당서』.

「당유인원기공비」.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일본서기』.

『자치통감』.

김병남,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126, 2012.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1991.

_____, 「문무왕」. 『한국사시민강좌』 13, 일조각, 1993.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의 실패 원인」. 『선사와 고대』 19, 2003.

_____, 「백제부흥운동의 성세와 당군의 대응」. 『한국고대사연구』 35, 2004.

_____,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2005.

김용만, 「2차 고구려-당 전쟁(661-662)의 진행과정과 의의」. 『민족문화』 27, 2004.

김종복, 「백제와 고구려 고지에 대한 당의 지배 양상」. 『역사와 현실』 78, 2010.

김주성, 「7세기 삼국 고대 전투 모습의 재현」. 『군사』 81, 2011.

김창현, 「당의 동북아 전략과 삼국의 대응」. 『군사』 47, 2002.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_____, 「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서정석, 「부흥운동기 백제의 군사 활동과 산성」.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성주탁, 「도침의 사상적 배경과 부흥활동」. 『호서사학』 19·20, 1992.

심정보, 「백제 부흥군의 주요 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1983.

_____, 「백제의 부흥운동」. 『충청남도지』 4, 2006.

_____, 「부흥군의 봉기와 부흥활동의 전개」.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양종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엿보기』. 서경, 2008.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이상훈,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 2011.

이현숙,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 2003.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 2. 혜안, 2012.

- 최현화, 「7세기 중엽 당의 한반도 지배전략」. 『역사와 현실』 61, 2006.
- 충남대 박물관·대전광역시, 『계족산성 발굴조사약보고』. 1998.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사자료역주집 - 한국편 I-』. 2008.
- 韓昇, 「당과 백제의 전쟁: 배경과 성격」.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 池内宏, 「百濟滅亡後の動亂及び唐・羅・日三國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 2冊,
吉川弘文館, 1950.

국 문 요 약

서기 661년 6월에 신라에서는 무열왕의 죽음과 문무왕의 즉위라는 정치 변동이 있었고, 전쟁의 한 축인 당나라 또한 고구려 정벌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당의 고구려 정벌은 곧 백제 땅에 대한 당의 추가적인 군사 투입을 어렵게 하는 호기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는 백제 부흥 세력과 당 주둔군 지도부 사이에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게 만들었다.

이때 백제 측의 외교 주체는 영군장군으로서 자신의 세력권인 사비와 그 주변의 임존성을 근거로 한 도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와 당의 교섭은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신라에게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신라는 평양성의 당군을 구원하기 위해 조직된 군대를 돌려 부흥 세력을 공격하기 이른다. 서기 661년 9월 27일에 백제 용산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들과 수천 명의 병사를 참살하였고, 다시 인근의 우술성마저 함락시켜 부흥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를 통해 신라는 백제와 당의 유착을 방지하고 다시 나·당 동맹의 관계를 재확인하였다.

결국 이 용산성 전투는 풍왕 정권의 수립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백제의 국가 재건 일정을 송두리째 흩어놓았다. 백제와 당의 교섭 진행과 그에 따른 신라의 반발은 유기적 지역 네트워크가 공고해지기 전에 한 부분을 와해시키고 말았으며, 나아가 지역 부흥 세력의 일부가 다시 신라에 투항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결속마저도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백제의 정국 운영 주도권이 복신에게 넘어간 것이다.

투고일 2012. 12. 17.

심사일 2013. 1. 30.

게재 확정일 2013. 2. 27.

주제어(keyword) 백제(Baekje), 부흥운동(the Revival Movement), 도침(Dochim), 복신(Boksin), 부여풍(Buyeopung)